



◇화암사 극락전 내부의 고주(高柱)는 길게 금이 가 있고 철사줄이 걸려 있다.

완주화암사 목조물 금가고 뒤틀리고 훼손된채 방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제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보물 663호) 등 불교 목조건축물들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장마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백제의 건축양식인 하양식구조(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서까래를 길게 뻗어 지붕구조)를 보여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화암사 극락전은 내외부의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뒤틀려있는 상태. 내부의 고주(高柱·보통기둥보다 높게 세운 기둥)는 갈다랗게 금이 가 있으며, 천장 아래로 원형에는 없는 별도의 구조물이 설치돼 천장을 받치고 있어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 외부도 뒷쪽 아래 나무부재가 쪼개져 누락된 정도로 구멍이 나 있다. 사정은 8년 극락전과 함께 해체·보수된 우화루(보물 662호)도 마찬가지. 기둥이 썩고 마루가 내려앉은 등 훼손이 심해 올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장마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관리국과 전북도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며 "현장조사를 거쳐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신라의 5층전탑(보물 189호)이 남아있는 송림사의 대웅전과 명부전은 기둥 등 목부재가 퇴락되고 지붕의 누수로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 10여년전부터는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면서 서까래와 기둥이 썩기 시작했고 땅과의 부식도 심각해지고 있지만 고작 지붕 전체를 비닐로 씌워놓는 조치를 취해 놓았을 뿐이다.

송림사측은 "내용전 개축과 명부전 보수 등 전통사찰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사찰을 가꾸어갈 계획이었으나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며 "새 주지스님이 오시는 대로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nia.com)

“대장경 민족 氣 결정체”

‘하늘이여 땅이여’ 작가 김진명씨

지난 2월 초판을 낸 이후 불과 4개월동안 50만부라는 경이적 판매부수를 올리며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하늘이여 땅이여’(全2권 해냄 판), 무려 5백만부가 팔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전3권)의 작가 김진명씨(41)의 또다른 히트작 ‘하늘이여 땅이여’에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이 소설 구성상 중요 요소로 등장해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컴퓨터전재와 컴퓨터해킹, 증권, 자본과 정보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금융운동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치밀한 구성으로 흥미를 끄는 이 책에서 팔만대장경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대요인이 나라를 지켜오고 있는 신비한 힘의 결정체로 나온다. 작가 김진명씨는 어떻게 팔만대장경에 주목하게 되었을까.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고조선 이후 가장 큰 역사가 이뤄졌던 기(氣)의 결정체입니다. 한반도 사상 최초로 위로는 임금부터 스님, 법사, 관리,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모두 일편단심으로 국력을 모아 16년간의 주조작업을 벌였지요. 지배층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던 세상의 어떠한 대역사보다 그 뜻이 종교적이고 순수해 그 힘은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힘이 몽고의 침입을 물리쳤지요. ‘힘’이라 하면 물리적인 힘만 생각하는데 생각의 힘, 기(氣)의 힘이란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대단하고 꾸준한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이러한 민족사적으로 크게

대장경 주조과정
법력과 의미 등
구체적 서술
소설 통한 포교 일조

몽창던 무형의 기가 들어가 있어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 김씨는 소설의 ‘천년의 법력’ 토우와 팔만대장경 등에서 팔만대장경의 주조과정과 그 법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 때 어떻게 보존이 되었나, 팔만대장경이란 무엇인가 등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어 소설을 통한 불교포교를 톡톡히 하고 있는 셈.

“하늘이여...’에는 경관중 몇개가 일제때 도난당하고 가판(假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일까.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로서도 무척 궁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소설에도 나와있지만 1937년 해인사주지 장제일스님이 미나미총독에게 경관의 도난 사실을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민족대백과사전>에는 대장경관의 총 수가 8만1천258매로 되어있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1968년 문공부의 의뢰로 경북대 서수생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만1천240매로 나와 있어 18개의 차이가 나지요.”

김진명씨는 불교계가 앞장서서 팔만대장경관의 정확한 숫자를 새롭게 확인해야 한다고



김진명씨

김진명씨는 “내놓을 때마다 만루출판을 치는 그의 다음 번 책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단군을 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김진명씨는 “오늘날 경제위기를 비롯 우리 사회 제반 위기의 본질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의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근세 서구 종교와 물질문명에 의해 왜곡되고 비틀린 우리 역사에서 불교가 할 일이 많다”고 불교계에 기대를 표한다.

“세계의 어느 종교보다 순수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종교인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그리고 자비심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경숙 기자Kslee@buddhania.com

이흥기씨 선화집 ‘침묵속으로’

일지 이흥기씨가 대원정사에서 펴낸 선화집 <침묵속으로>는 ‘불에 탄 입상’을 부정하는 정신이 가득하다. ‘법상’ ‘몽중몽(夢中夢)’ ‘백발반보’ 등 47점의 선화들은 평화나 안식보다는 그 이전의 변화와 고통, 산다는 것에 대한 실존적 고뇌가 너무도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 일그러진 모습에서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부정과 고뇌에 찬 몸부림이 없다면 평화와 자유와 긍정은 없다는 것이 그린 이의 생각이다.

이씨는 불갈대신 황토흙을 사용함으로써 운필이 인위적이고 매끄럽기보다 거친 듯한 자연스럽음이 배어난다. 또 종이 대신에 러닝셔츠나 보지기같은 천을 이용한 것도 이채롭다.

◇달마도

‘경주문화엑스포’ 1일부터 입장권 예매 불교문화행사 볼거리 풍성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간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새 천년의 미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문화엑스포 입장권 예매가 1일부터 시작했다. 천 년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다양한 불교관련 문화행사들도 마련돼 있다.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국제멀티미디어아트쇼=백남준 박연기 씨 등 11명의 국내외 유명작가 참가

▶세계문명관=이집트 인더스 황하 마야 등 6개 문명관 마련, 각 유물 전시.

▶전통문화 전시=석굴암, 고구려 고분 벽화 등과 일본 시마네현, 중국 허난성 등 전통문화를 교류하는 기획전시.

▶유네스코사진전=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사진전.

▶경주남산사진전=경주 남산의 유적 유물 사진 50여점 전시

▶경주문화유적 관화전=경주 일대의 문화유적을 소재로 한 관화전시

▶오페라 ‘원효’=원효대사의 삶과 사상을 오페라로 소개

▶국제학술회의, 세계민속공연 등 개최.

문화 단신

태평무 전수회관 개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기능 보유자 강선영씨(73)가 무용인생 60년을 맞아 고향인 경기 안성시 사곡동에 태평무 전수회관을 마련 23일 개관식을 가졌다. 사제 8여여원을 들인 이 태평무 전수회관은 대지 1천7백여평에 건평 410평규모의 2층 건물이다.

日 소장 수월관음도 도난

일본 오사카 에이후쿠지(齋福寺)가 소장해 온 국보급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도난당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문화청은 19일 “에이후쿠지가 수월관음도 등 고미술품 20여점을 14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도난당한 수월관음도는 색채가 화려하고 문양의 구성이 치밀해 전형적 고려 수월관음의 화사함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4세기 중반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심시심 <134>

몸은 고목처럼

小亭近水月來先 작은 정자 물에 가까이 달이 먼저 오고 (소정근수월래선)
萬象虛心似懸煙 온갖 물상 마음 비우면 파란 연기 같애 (만상허심사취연)
移席逡巡無下土 자리 옮겨 요리조리 디딜 땅이 없고 (이석준순무하토)
擡頭咫尺半青天 머리 들면 지척에 푸른 하늘 닿다 (대두지척반청천)
柳梳風陌盡凝綠 버들은 바람 언덕 빗질하여 남색에 녹색 영기고 (류수풍막정녹)
花翠香滿蝶翩翩 꽃은 봄물결 나누어 섬세한 살결이 곱다 (화벽춘의이세연)
中有清談黃老士 이 중에 청담을 즐기는 황로의 선비 있어 (중유청담황로사)
身如枯木骨如仙 몸은 마른 나무이고 뼈대는 신선일세. (신여고목골여선)

월하대사의 ‘월선정(月先亭)’이라 제한 시이다. 정자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달이 먼저 오른다는 정자이니, 강가에 달이 있음을 연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정자가 물에 가까이 있어서 달이 먼저 온다. 그 시상을 떠올려 시작하고 있다. 물에 가까운 정자에 달이 앉아야 힘이 닿는다. 그러나 이 강가의 마음은 비어 있는 것이다. 물결이 일지 않는 강은 파란 아지랑이가 깔려 있듯 아스라하다. 이 시로 보아서는 허심의 주체가 강이어야 하나, 작자는 자신의 마음을 유추적으로 쓴 것이 분명하다. 나보다 먼저 온 달과 오 늘은 친구가 된 것이다. 흥이 돌아 일어나 춤이라도 출 자제가 되나, 물에 다가가 정자이니 아래로 내리 발을 땅이 없다. 내일 수 없는 것이니 울리더라도 하려고 고개를 들

면 바로 하늘에 닿는다. 이것 이 이 강결의 공간이다. 대단 히 협소한 공간이지만, 바로 아래가 땅이요 위가 하늘이라 면 오히려 이 공간은 하늘과 땅에 닿았다 있으니 무변 공대 의 더없이 넓은 공간이다. 버들은 바람에 흔들려 저 언덕을 빗질하고 있다. 버들가지 하나하나가 빗살이다. 이 빗살 이 푸른 언덕을 가다듬으니 물 빛의 남색에 산빛 버들빛의 녹색을 덧칠하고 있는 것이다. 꽃은 봄 물결을 나누어 가지니 그 살결이 더욱 섬세해진다. 이 두 구의 대칭은 봄날의 자연을 미화시키는 절정이다. 이런 풍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에 청담을 즐길 수 있는 주인이 있다. 이가 바로 오 늘의 현묘한 고담을 즐길 수 있는 선비이니, 그 고고한 기상은 천년의 연륜을 자랑할 고목 이요, 신선의 풍골을 지닌 선 객이요 도사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순천 문화유적지도 나왔다

문화재연구소, 보물등 유적 797건 소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진)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의 첫해 성과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전남 순천시-편을 발간했다.

순천시의 문화유적 위치와 범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책에는 국보(3점)·보물(9점)·사적(1점)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 시도지정문화재(38점) 및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 등 총 7백97건의 문화유적이 소개됐다. 이중 5백17개 유적의 위치와 범위가 1/10,000 지형도에 표시됐고, 4백79개의 유적사진이 실렸으며, 현상변경된 2백80개 유적은 부록으로 실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불교문화재도 송림사 등 사찰(절터) 1백26건, 금동사지 석불비상 등 불상 6건, 동화사 3층석탑 등 탑과 5건, 선암사 북부도 등 부도 67건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지도에 표시돼 있는 유적의 명칭, 사진, 소재지, 시대, 종류, 내용, 지도색인 지정사항 등 제반 설명을 뒷부분에 담아 문화유적탐방으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다.

한편 문화재연구소는 제2차, 도 사업으로 공단과 택지, 온천 개발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는 충남 천안시를 선정, 그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8월 31일까지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성당론	·무전스님(본대학장)·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정병진(동국대교수)·오국진(동국대교수)	·박준(불성개발연구원)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차차성(동국대교수)·김영배(동국대교수)	·박주승(동국대교수)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강희위(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김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려교수)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권기중(동국대교수)·이현승(동국대교수)	·윤열수(동국대교수)
		·홍석스님(승려교수)	·한정림(금강선원이사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환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 일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연각(조계사앞) ☎ 733-033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광주 : 불일서점 ☎ 232-7542
- 부산 : 불서보급사 ☎ 246-4321
- 대전 : 보문서점 ☎ 257-0161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